

대선후보 농업관 강연회  
말씀자료

2002. 11. 5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



인사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여러분 한분, 한분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신 박홍수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성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민족의 기초산업이요,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키워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활기차고 의지에 불타는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농촌의 내일은 있다,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당의 농업관, 그리고 농정공약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등 생활터전과 생산기반을 상실한 전국의 농어업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의 농업관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우리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농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농업은 바로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을 천시하고 농지를 감소시켜 급기야 식량이 부족할 경우, 우리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상황이 초래 될 것입니다.

지난 IMF사태때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달러가 부족해 해외에서 사료를 수입할 수 없어 국내 축산 농가들이 도산을 하고 가축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만약 당시에 쌀이 부족했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사이먼 크즈네츠 교수는 일찍이 그의 저서 '현대 경제성장론'에서 "후진국들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으로의 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석학의 충고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4년전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했을 때, 우리나라는 IMF라는 역사상 초유의 국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 국민의 실의와 좌절에 빠진 모습을 보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민은 얼마나 큰 좌절감을 맛보았습니까. 정부에 대한 실망은 또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농어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음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인 여러분이 겪은 마음 고생과 고초에 대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어촌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UR 협상 결과로 인해 정부가 취해온 보호 정책을 해제하



고 정부지원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 한·칠레 FTA 등으로 외국과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WTO 협상은 더욱더 많은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이 개방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급변하는 국제 여건에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업기반이 또다시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 우리농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민주당의 그동안 노력

그동안 우리당은 농어민들이 안고 있는 농가부채 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과 잘사는 농어촌 건설, 새로운 농정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농어민 부채경감추진, 논농업직불제도입, 농업재해보험제도입 등 농어가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농촌사회를 잘사는 생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책방향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 농정방향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 통일을 대비하는 자립농정 실현을 목표로 쌀 자금과 소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쌀은 우리농업의 근간입니다.

농업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70%의 농민들이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유지입니다.



우선 쌀 재고량 해소를 위해 소비촉진을 강화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쌀소득 보전을 위해 직접지불제의 지원 단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중심의 생산체계를 유도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량의 자급도를 UR협상 이전인 33% 수준으로 그리고 점차 상향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남한만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쌀산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적정규모의 농지 보전과 생산기반 정비는 쌀산업 보전의 필수적 과제입니다. 특히 생산조절 정책을 펴는 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도입하고 언제든지 주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지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저희 당은 농어가부채 경감을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농어민들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농가 부채문제는 과거 야당시절부터 우리 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성과입니다.



농어민의 영농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자금 및 상호  
금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농신보를 개편하여  
연대보증을 대폭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 되어서  
는 안됩니다.

오늘날 농업선진국들의 발전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에 기인합니다.

2004년에 종료하는 농특세기간을 다시 재연장하고 운용내  
역도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  
루어지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예산을 정부 예산의 10%수준을 반드시 확보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작물재해피해에 대한 지원을 획  
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지원은 WTO규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농작물재해에 대한 복구비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자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융자금에 대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나갈 계획입  
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WTO협정에 따라 정부가 농민들에게 보조해온 지원을 매년 삭감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추곡수매도 불가피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소득만큼 정부가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WTO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실시해 나가겠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과 복지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어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식들 교육문제와 복지문제입니다.

나는 비록 고생을 하지만 내 자식을 잘 가르쳐보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농어촌지역에 살면서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학특례입학을 대폭 확대하고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어촌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병역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의료 시설·장비 확충 및 기능을 보강하고 농부병, 노인병 등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질병 치료 및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복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복지 개선에 실질적인 뒷받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 농민들을 위해 아무리 많은 조치를 취해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하여 가격보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영도매시장내에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의  
영업을 활성화하고, 주요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를 제  
공하고 생산자단체에서 건축비를 부담하여 생산농민이 직  
접 판매하는 소비자 밀착형 직거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생산이익뿐만 아니라 저장, 가공, 포장, 판  
매, 수출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를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유통구조의 일대혁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조직과 농업경영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축산업은 쌀과 더불어 우리농업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러나 축산물의 수입자유화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생산기반 조성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입쇠고기  
둔갑판매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쇠고기 자급률 제고 등  
양축농가 보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  
니다.

무엇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생산은 축산업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환경축산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식물검역 및 질병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집중적인 방역청을 신설하고 해외 및 국내 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몸에는 우리농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급식법'도 개정해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농업과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 우리농업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여성농업인육성법'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생활과 농업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 무역자유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차원의 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국경조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분야의 통상협상 강화 및 국내 대응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늘협상의 실패처럼 통상협상을 밀실로 하지 않고 민·관·학 등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대책 기구를 구성하여 협상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뉴라운드 협상, 쌀 재협상 등 농업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별 대책 수립하는 한편 WTO에서 허용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칠레간 FTA는 'FTA추진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한 후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농업의 활로는 수출농업의 육성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특색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진흥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정금액의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조성·운영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출 농어업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WTO 허용보조 범위내에서 정부차원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생명공학을 세계 5대 강국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생명공학은 21세기의 새로운 고용 및 부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80년부터 전략분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 투자도 유도해 내겠습니다.

▷ 산림의 육성과 효율적인 이용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토의 46%를 차지하는 산촌을 녹색관광 (Green-Tourism)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친애하는 농업경영인 여러분!

어떤 공약을 제시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할 의지입니다.

저는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어민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노무현의 약속은 보증수표처럼 확실하게 실천이 보장된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자 합니다.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단순한 염원이 아니라 몸을 던져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돈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 당과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힘만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힘을 뭉쳐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이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는데 책임 있고 강력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저 노무현은 국민 대통합의 정치로 21세기 선진국을 실현시킨다는 소명으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나섰습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농민이 당당한 주체로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시대가 바로 국민대통합의 시대요, 선진대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농어촌을 보호하고 발전시켜낼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닥쳐와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용기가 있습니다.

이 노무현과 함께 우리 농어민들도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농민시대를 힘차게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